

주요 내용

1. [Z세대 리포트]

Z세대, 10명 중 4명 '돈'보다 '워라밸' 중시!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종교별 예비 성직자 감소 실태
- 2) 한국의 업종별 임금 수준



Z세대, 10명 중 4명 ‘돈’보다 ‘워라밸’ 중시!

보통 MZ세대를 묶어 하나로 보지만, 엄밀히 보면 M세대와 Z세대는 출생 시기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이번 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라고도 불리는 Z세대이다. Z세대(Generation Z)는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 사이의 세대를 의미하며, 인구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한다. 나이로는 대략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이니 교회에서는 청소년부에서 대학부 정도까지가 해당된다.

지난 넘버즈 211호 목회 인식 파트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목회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위가 ‘다음 세대 교육 문제’였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이들에 대한 가치관, 욕구 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성세대와는 가치관·행동 등 모든 것이 다른, 이 세대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품는가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번 <넘버즈 212호>에서는 Z세대의 전반적 인식/가치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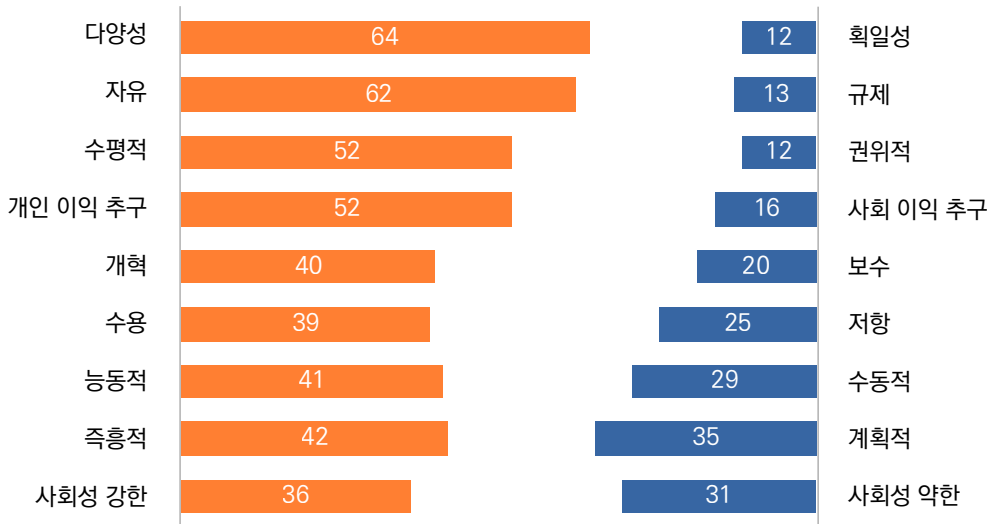
01

[Z세대에 대한 인식]

Z세대가 생각하는 Z세대, ‘다양성, 자유, 수평적!’

- ▶ Z세대는 자신들의 성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서로 대조되는 단어 쌍을 제시하고 Z세대에게 본인의 특징과 더 가까운 단어를 선택하게끔 한 결과,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규제보다는 ‘자유’, 권위적이기보다 ‘수평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반면, ‘능동적’, ‘즉흥적’, ‘사회성 강한’ 성향은 대조되는 특징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Z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Z세대의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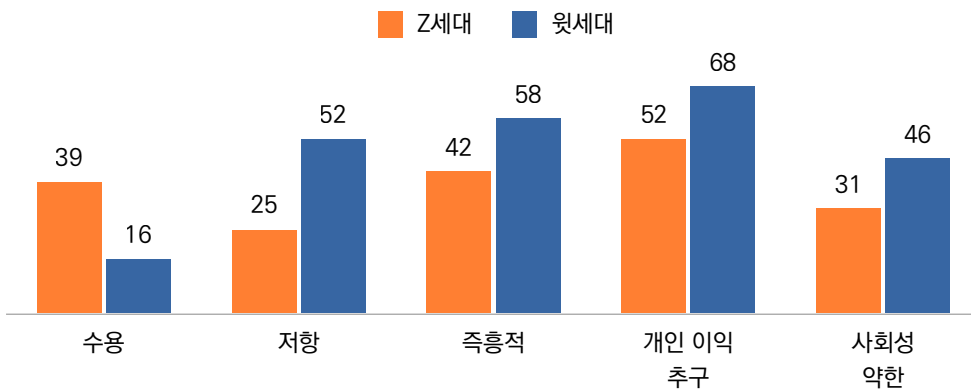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오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5점 척도로 두 개의 상반된 단어 쌍을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가까움(매우+어느 정도)을 선택한 비율

◎ 윗세대, Z세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 커

- ▶ 이러한 Z세대에 대해 그 윗세대(만 29세 이상)는 어떻게 생각할까? 동일한 항목을 제시하고 Z세대의 특징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게 한 결과, 윗세대는 Z세대에 대해 ‘저항’, ‘즉흥적’, ‘개인 이익 추구’, ‘사회성 약한’ 등의 이미지를 더 많이 선택해 Z세대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Z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항적, 즉흥적, 이기적, 사회성 약한’ 등의 이미지는 윗세대가 가진 Z세대에 대한 편견인 셈이다.

[그림] Z세대 성향 인식 : Z세대 vs 윗세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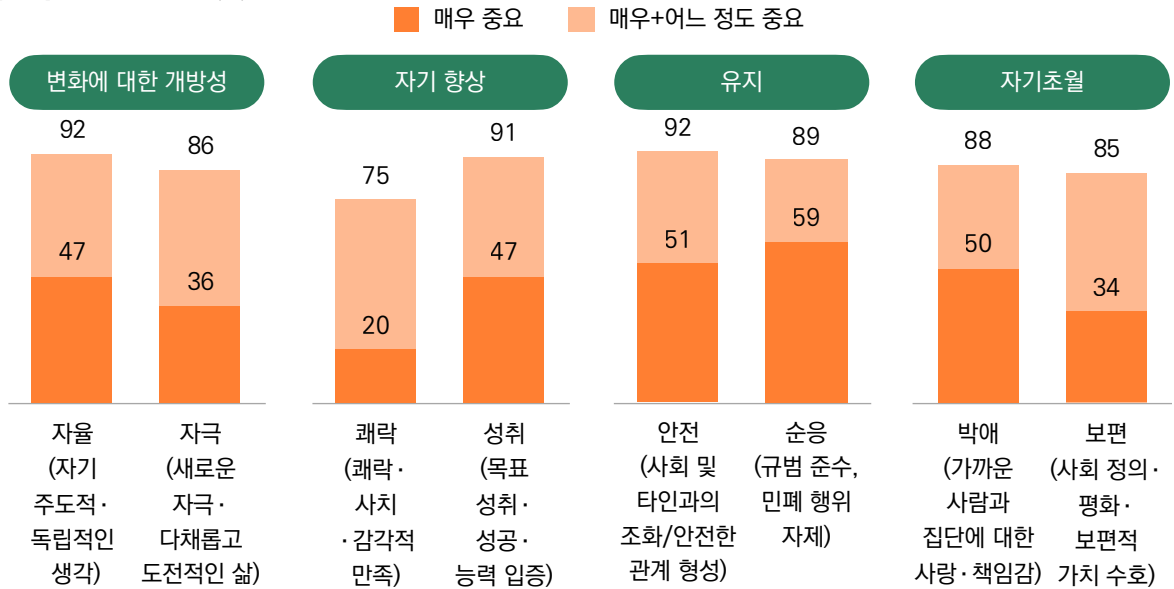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오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5점 척도로 두 개의 상반된 단어 쌍을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가까움(매우+어느 정도)을 선택한 비율

◎ Z세대,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 '안전'의 양면적 가치관 지녀

- ▶ Z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살롬 H.슈워츠'의 '보편적 가치 이론'에 따른 가치관의 종류를 제시하고 중요도를 물은 결과, Z세대는 '자율, 성취, 안전, 순응' 가치에 대해 90% 안팎의 높은 중요성을 부여했다. 특히 '순응, 안전, 박애'의 경우 Z세대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림] Z세대 가치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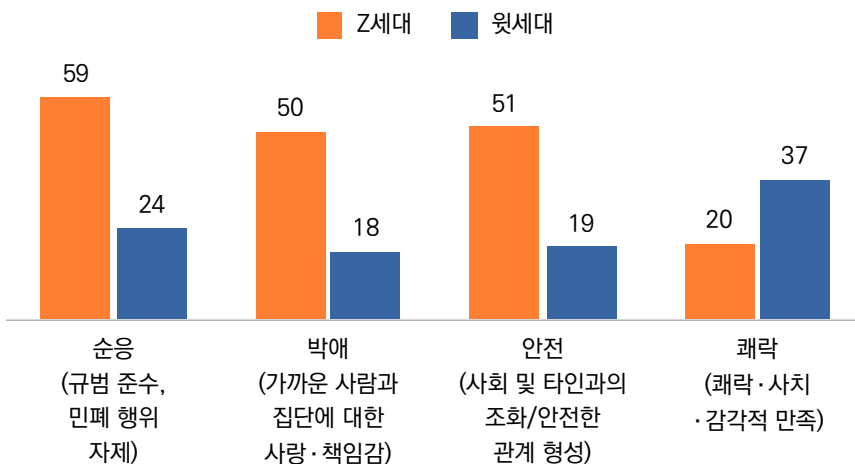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4점 척도임

◎ 윗세대가 바라보는 Z세대, '순응, 박애'보다는 '쾌락'!

- ▶ 이번에는 윗세대(만 29세 이상)에게 Z세대가 각각의 가치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Z세대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순응, 박애, 안전, 쾌락'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Z세대는 스스로 타인과의 조화(안전), 규범 준수(순응), 주위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박애)을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윗세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Z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Z세대 가치관 인식 : Z세대 vs 윗세대 비교 ('매우 중요'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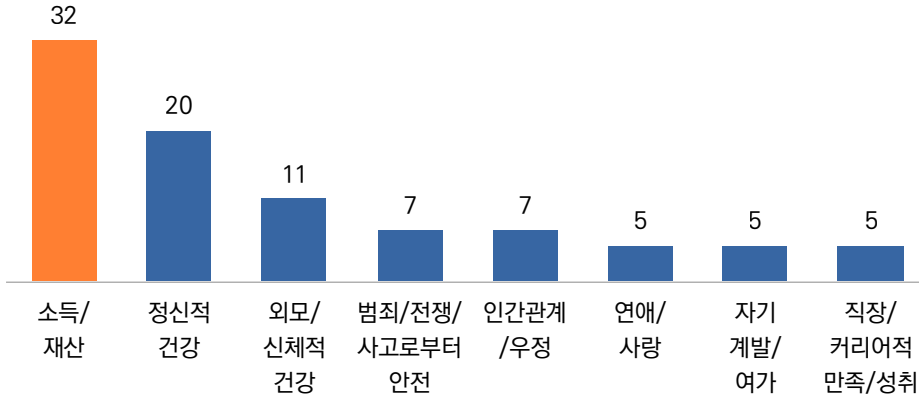
02

[Z세대의 가치관]

Z세대,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

- ▶ Z세대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소득/재산'이 32%로 '정신적 건강'(20%), '외모/신체적 건강'(11%), '안전'(7%)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Z세대,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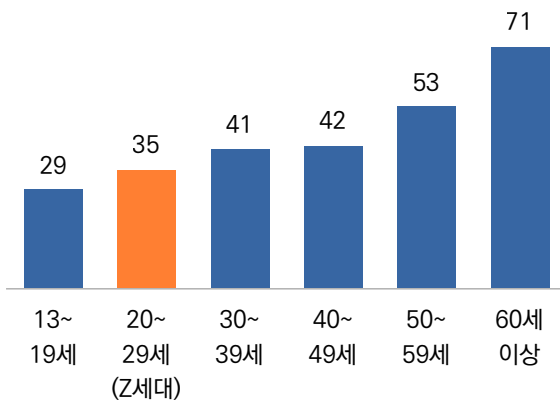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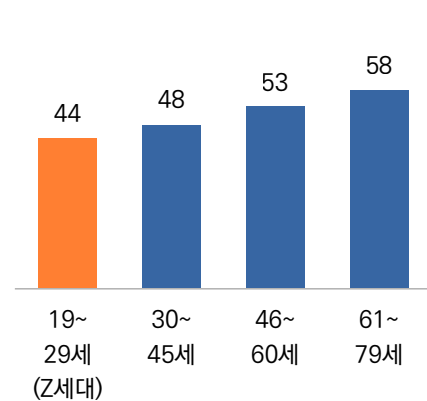
◎ 결혼의 필요성, Z세대 3명 중 1명만이 동의

- ▶ Z세대들의 결혼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결혼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Z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결혼의 당위성(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동의했다.
- ▶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았는데, Z세대에 해당하는 20대에서는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그림]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 비율***, %)



[그림]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비율****,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11.16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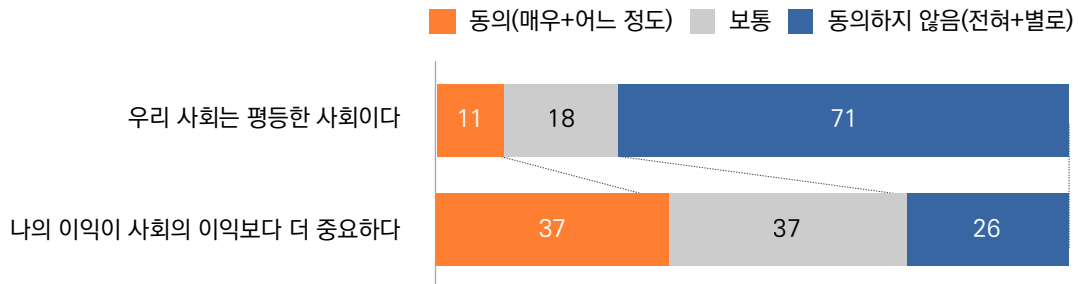
***5점 척도임

****4점 척도로 '매우+대체로' 비율

◎ Z세대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평등하지 않다!'

- ▶ Z세대에게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1%로 Z세대 10명 중 7명이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나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7%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26%)보다 더 높아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보였다.

[그림] 사회에 대한 인식 (Z세대, %)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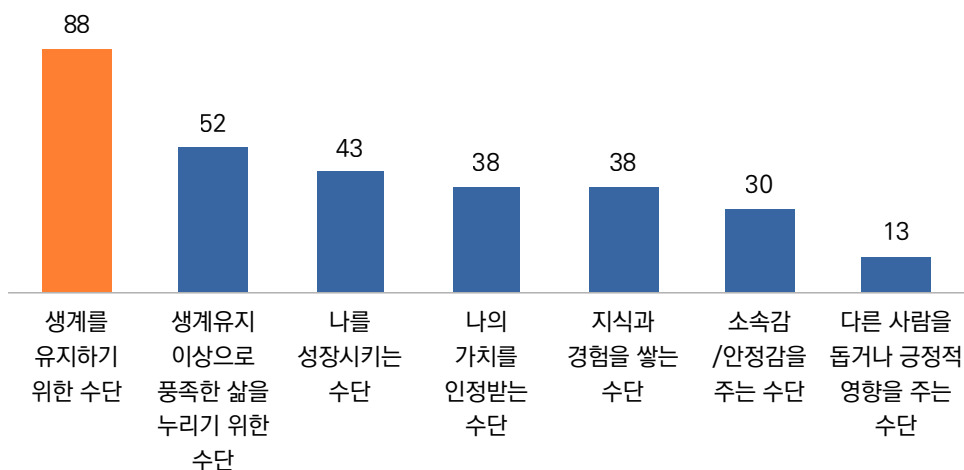
03

[Z세대의 일에 대한 인식]

Z세대 88%, '일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 ▶ Z세대에게 있어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압도적(88%)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생계유지 이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 52%,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 43%,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 38% 등의 순이었다.
- ▶ 일을 '나의 성장과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보다는 '생계유지와 풍족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아, Z세대의 물질 우선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일의 의미 인식 (Z세대,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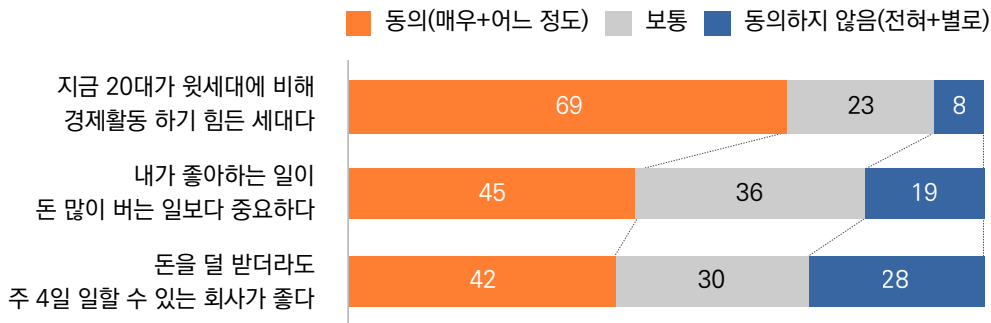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 Z세대 10명 중 4명, ‘돈’보다 ‘워라밸’ 중시!

- ▶ Z세대에게 경제 활동 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그 결과, ‘지금 20대가 윗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하기 힘든 세대다’에 Z세대 10명 중 7명꼴(69%)로 동의해 이들이 취업 준비/구직활동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 많이 버는 일보다 중요하다’에 절반 가까이(45%)의 동의율을 보인 점은 앞서 직장 선택 시 ‘높은 금전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과는 상충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하나, 내적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 ‘돈을 덜 받더라도 주 4일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좋다’는 42%가 동의해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Z세대, %)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 Z세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사내 복지, ‘조기 퇴근’!

- ▶ 전 세대가 모여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직장’이다. 세대별로 가장 선호하는 사내 복지를 물었다. 그 결과, Z세대는 ‘조기 퇴근’을, M(밀레니얼)세대는 ‘주 4일, 4.5일 근무’를 1위로 응답했다. 그 외에 X세대는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86세대의 경우 ‘식대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란 워라밸 측면에서 ‘근무 시간 단축’이란 복지를 선호했고, ‘X세대’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복지, ‘86세대’는 식대 지원 복지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 세대별 매우 다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가장 선호하는 사내 복지 (세대별)

Z세대 (19~27세)	M(밀레니얼)세대 (28~42세)	X세대 (43~53세)	86세대 (54~59세)
			
조기 퇴근 (금요일 4시 퇴근 등) 45%	주 4일, 주 4.5일 근무 41%**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46%	식대 지원 50%

*자료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세대별로 선호하는 직장의 조건과 직장생활’, 2023.09.25.(19~59세 직장인: Z세대 1996~2004년 출생자, 후기 밀레니얼 1989~1995년 출생자, 전기 밀레니얼 1981~1988년 출생자, X세대 1970~1980년 출생자, 86세대 1964~1969년 출생자, 2023.05.12.~05.22.)

**전기 밀레니얼 응답 비율과 후기 밀레니얼 응답 비율을 동일 수로 가정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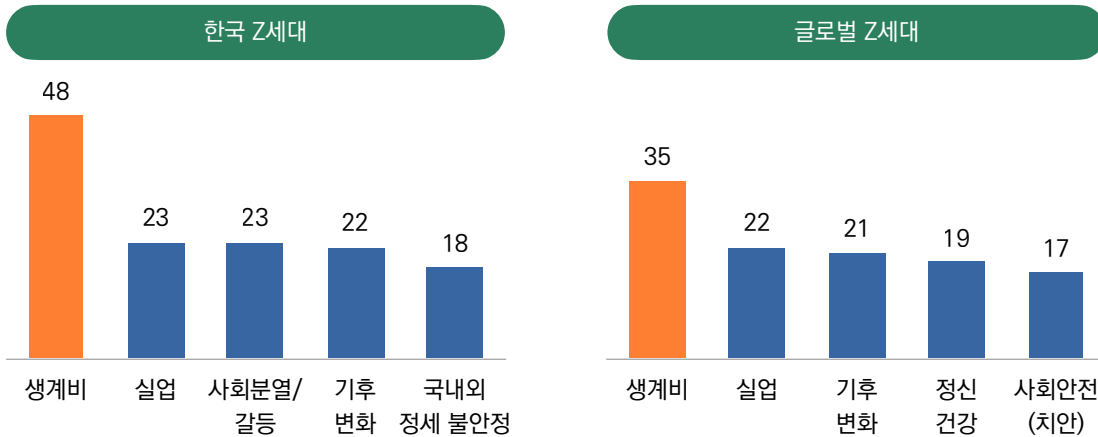
04

[한국 vs 글로벌 Z세대 인식 비교]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보다 '생계비' 관심 높아!

- ▶ 한국의 Z세대와 글로벌 Z세대 간에는 어떤 인식 차이가 있을까? 딜로이트 컨설팅사가 최근 실시한 전세계 44개국 Z세대 14,483명을 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들의 관심사를 1~5위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 Z세대와 글로벌 Z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모두 '생계비'였다. 그러나 한국 Z세대(48%)가 글로벌 Z세대(35%)보다 생계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2순위 관심사인 '실업'(23%)의 2배에 달했다.

[그림] 5대 관심사 : 한국 Z세대 vs 글로벌 Z세대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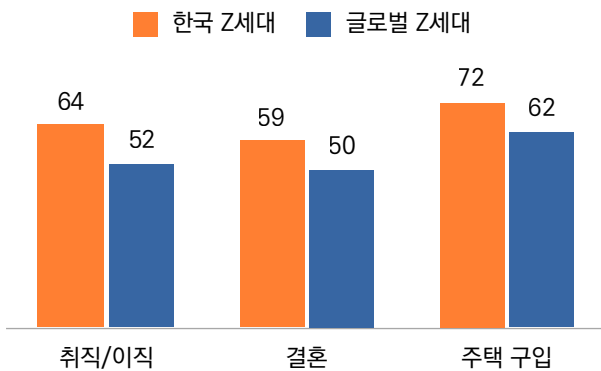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딜로이트, 딜로이트 2023 글로벌 Gen Z & Millennial 서베이, 2023.05. (전 세계 44개국 Z세대 14,483명,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 2022.11.29.-12.25.)

◎ 한국 Z세대, 다른 나라 Z세대보다 취업/결혼/주택 구입 가능성 더 비관적!

- ▶ 한국과 글로벌 Z세대들에게 '앞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두 그룹 모두 '주택 구입' 가능성을 가장 비관적으로 인식했고, '취직/이직', '결혼'을 꼽은 비율이 50~60%대로 나타났다.
- ▶ 한국 Z세대의 '취업, 결혼, 주택 구입' 가능성이 모두 글로벌 Z세대보다 낮아 한국 젊은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앞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것** : 한국 Z세대 vs 글로벌 Z세대 (%)



*자료 출처 : 딜로이트, 딜로이트 2023 글로벌 Gen Z & Millennial 서베이, 2023.05. (전 세계 44개국 Z세대 14,483명,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 2022.11.29.-12.25.)

**앞으로 1년 내 경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건

오늘날 시대는 0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M세대, Z세대, X세대, α세대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이에 어울릴 법한 이름을 붙여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세대론'이다.

특정 세대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첫 번째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이다. 베이비 붐이란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뜻하는 용어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일컫는다. 다음 세대인 'X세대'는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후반까지 태어난 세대, 혹은 1970년에서 8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X세대라는 말은 캐나다 작가 더글라스 커플랜드가 그의 소설 'X세대'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X세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 다음이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불리는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의 세대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현재 나이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후반 세대가 오늘 분석한 Z세대이다. Z세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X세대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로 일부 미국 언론이 Y세대, 그리고 Z세대까지 알파벳 순으로 세대를 정의하면서 통용되기 시작됐다.

한 예능 방송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코믹하게 그려낸 'MZ 오피스'라는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업무 중에 에어팟을 착용하고, 회식 때 상사 의견에 신경 쓰지 않으며, 근무 환경에 불만을 품고 늘 이직할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을 풍자했다. 이렇듯 기성 세대에게 젊은 세대는 자유롭고(버릇없고), 저항적이고(순종적이지 않고), 집단과 조화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Z세대에 대한 특징, 즉 Z세대론을 만든 것은 Z세대가 아니라 그 윗세대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Z세대의 실체와 상관없이 윗세대가 바라보는 Z세대의 특징이 Z세대 특성으로 통념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번 <넘버즈 212호>에서도 잘 드

러나 있다. Z세대 스스로는 본인들이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윗세대는 Z세대를 '저항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즉흥적'이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성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Z세대는 본인들이 '순응적'이고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윗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Z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마디로 윗세대는 Z세대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Z세대 스스로는 윗세대의 인식과 같이 그렇게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항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가 바로 세대론의 함정이다. 중앙대의 신진욱 교수는 그의 책 '그런 세대는 없다'에서 세대 내 특정 집단의 특성을 세대 전체의 특성으로 부각하는 잘못을 세대론 주창자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정 세대를 일정한 틀로 설명하는 것 즉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일종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낙인은 특정 세대에 대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들을 고립시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Z세대인 청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세대에 대한 과도한 유형론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교회 리더들은 청년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예산 등 하드웨어적 지원은 관심을 보이거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해서 청년부가 교회와 단절된, 계도화된 공동체로 남는 경우가 많다. 세대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에 따른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공통의 문화적 정서적 바탕이 넓다는 점을 인식하고 Z세대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감을 갖고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리더들은 Z세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Z세대를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이들과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Z세대를 별난 존재, 미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교회가 세대 통합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1.[종교별 예비 성직자 감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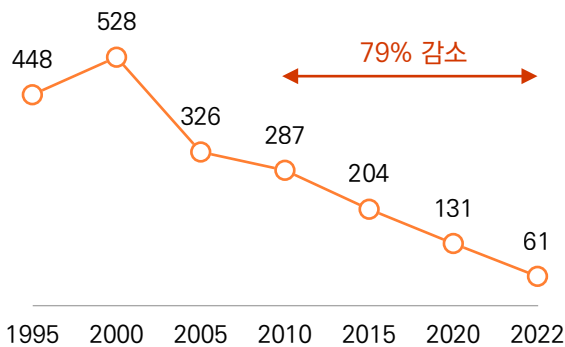
2.[한국의 업종별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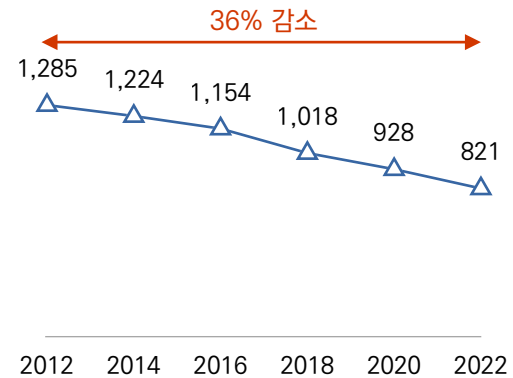
불교 출가자 수, 12년 사이 79% 감소!

- ▶ 저출산과 탈종교 현상 등의 요인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역시 해당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종교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별 예비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 ▶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불교 출가자(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 수는 2000년 528명에서 2010년 287명, 2020년 131명, 2022년은 6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의 61명은 2010년 대비 79% 감소한 수치이며, 2020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 ▶ 천주교의 교구 신학생 수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12년 1,285명에서 2022년 821명으로 10년 새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불교 출가자 수 추이 (대한불교조계종 기준, 명)



[그림] 천주교 교구 신학생 수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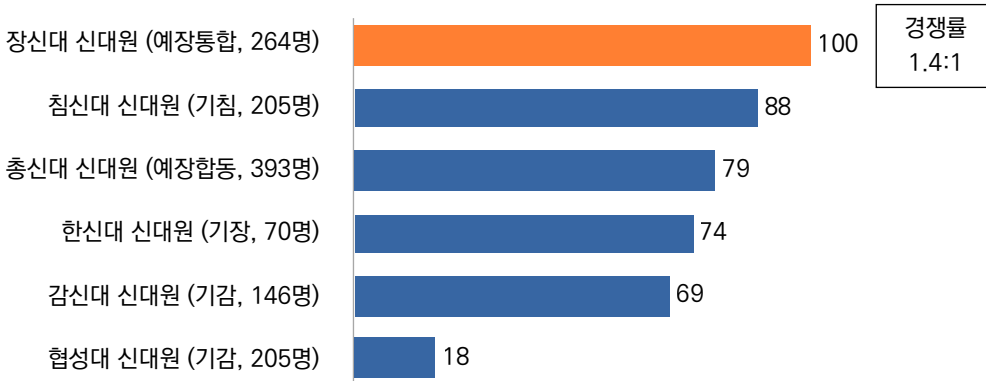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출가 반토막, 종신대 첫 미달...불교도 기독교도 '종교 절벽' 왜 기사 참조, 2023.10.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9944>)
 **넵버즈 206호의 '종교 인구 분포' 파트 참조

◎ 2023년 한국교회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율, 대부분 미달!

- ▶ 개신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총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신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 ▶ 장신대 신대원만이 유일하게 지원자가 입학정원을 넘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신대원 정원을 감축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주요 교단 신대원 신입생 모두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율 (2023년 기준, 정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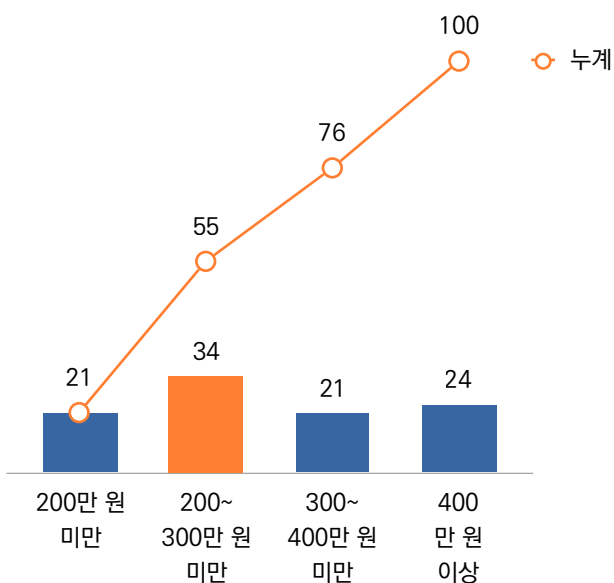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학알리미, 신입생 총원 현황(대학원) 자료 참조,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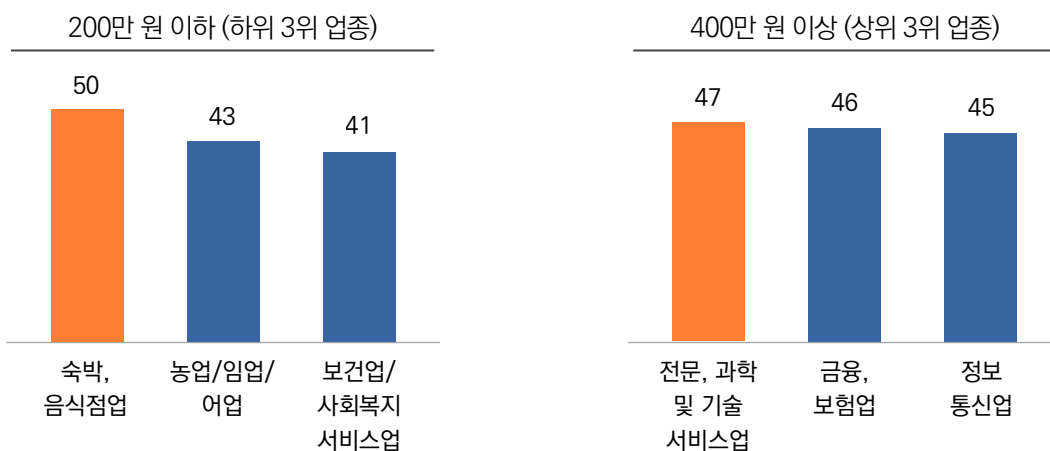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55%가 월 300만 원 미만 급여 받아

- ▶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0~300만 원 미만'이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0만 원 이상' 24%, '300~4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 미만'이 21%로 집계됐다. 월급 3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55%로 전체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었다.
- ▶ 업종별 임금 수준을 보면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200만 원 미만 임금이 50%를 차지한 데 반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의 비중이 50%에 가까 워 업종에 따라 큰 임금 수준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별 비중 (2023년 상반기, %)



[그림] 월 평균 임금에 따른 업종별 근로자 비중 (2023년 상반기,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7.

[표] 업종별 임금 근로자 수와 임금 비중 (2023년 상반기)

	근로자수 (만 명)	월 평균 임금 비중 (%)				구성비
		200만 원 미만	200~300 만 원 미만	300~400 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전체	2,179	21	34	21	24	100
제조업	400	6	33	28	33	100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77	40	38	13	9	100
도매,소매업	213	23	38	20	19	100
건설업	168	10	30	30	29	100
교육 서비스업	162	25	30	19	27	100
숙박,음식점업	143	49	36	12	3	1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132	28	47	17	8	100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127	24	25	20	30	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8	5	26	23	47	100
운수,창고업	95	12	33	31	24	100
정보 통신업	91	4	26	25	45	100
금융,보험업	75	7	26	21	46	100
협회,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65	29	40	19	11	100
부동산업	38	24	43	21	12	10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6	34	38	16	12	100
농업,임업,어업	9	43	34	14	9	10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7.

**note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통번역 등의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1호 \(2023년 10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등

◎ 사회 일반

["독신남·기혼남 수명차 14년"... 퇴직한 중년 남성에게 벌어질 일](#)

조선일보_2023.10.21.

[정치·선거 여론조사 때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연합뉴스_2023.10.22.

['어른'에 대한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3.10.18.

["2023년 직장 젠더 감수성 73.5점 '낙제점'...성차별 여전"](#)

연합뉴스_2023.10.22.

["전쟁나면 총 쓸 줄은 알아야죠" 여성 38%, 기초군사훈련에 찬성](#)

조선일보_2023.10.21.

["한국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혜택 등 적정성 분야 최하위"](#)

연합뉴스_2023.10.18.

[게임 이용률 1년 새 74%→63% 급감...모바일서 감소 두드러져](#)

연합뉴스_2023.10.18.

◎ 청소년 / 청년

[3년 이상 취업 안하고 집에서 시간 보낸 청년 '니트족' 8만명](#)

연합뉴스_2023.10.22.

◎ 기업 / 경제

[경총 "중소 3곳중 1곳,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필요성 공감"](#)

연합뉴스_2023.10.22.

[韓 여성 고용률 상승에도 남녀격차 OECD 38개국 중 8위](#)

연합뉴스_2023.10.23.

["월급만 안 올라 뭐든 해야" 온라인·AI 활용 'N잡러' 54만명](#)

중앙일보_2023.10.21.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3.10.20.

[K-배터리 수주 잔고 2000조 향해 뚫다](#)

주간동아_2023.10.1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유럽인들 한번 자동차 사면 평균 몇년을 탈까요](#)

[조선일보_2023.10.21.](#)

[프랑스엔 방학 없는 무료 어린이집, 일본 전철역에 보육스테이션](#)

[중앙일보_2023.10.20.](#)

[육아휴직 반년간 급여 80% 받는다...‘라떼파파’ 스웨덴의 비결](#)

[중앙일보_2023.10.22.](#)

◎ 건강

[코로나19 백신 맞을까 말까...“맞겠다 45.9% vs 안 맞겠다 46.6%”](#)

[연합뉴스_2023.10.20.](#)

[병원서 5년, 집에 온 50대 "다신 안 가"...예산도 1072만원 절감](#)

[중앙일보_2023.10.18.](#)

[“약값 비싸서 우리애 비만 치료 못해요”...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매일경제_2023.10.18.](#)

[외로운 사람 31%는 우울증... ‘나의 사회적 고립’ 측정법은](#)

[조선일보_2023.10.18.](#)

[MZ 가속노화 (중앙일보)]

[‘갓생’ 사는 MZ 암 발병률 사상 최고...충격의 건강검진 결과](#) _2023.10.17.

[“MZ, 부모보다 빨리 늙는다”...당뇨·고혈압 증가 5060 압도](#) _2023.10.17.

[MZ "눈 침침, 폰 글자 키웠어요"...퇴행성 관절염도 23% 늘었다](#) _2023.10.18.

[성인병 앓는 MZ "난임 걱정"...불임 36%가 30대 초반이었다](#) _2023.10.18.

◎ 기독교 / 종교

[“美 ‘주류 개신교’ 목회자들, 교인들보다 더 ‘진보적’”](#)

[크리스천투데이_2023.10.06.](#)

[아시아계 미국인 34% “난 기독교인”... 11년 전보다 8% 감소](#)

[크리스천투데이_2023.10.1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 월드비전 감사챌린지 |

감사한달은 감사노트와 함께 매일 감사묵상&매일 감사찾기&매일 감사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신앙회복 챌린지입니다.

신청기간 : 9월 15일 ~ 10월 25일

참가대상 : 감사하고 싶은 누구나

참가비 : 무료

TGC노트 신청하기

감사한달 안내

